

# “광주정신 계승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야죠”

##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더 프레전트’

### 아카펠라 알리며 광주에 정착한 그들 ‘5·18’ 노래 부르며 송고한 뜻 전파 공식 기념곡 지정 위해 관심 필요해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아카펠라 팀으로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자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떠올리게 됐어요. 광주정신과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기 때문에 단순한 곡의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비극을 알리고, 그날을 겪지 않은 세대가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더 프레전트’(The Present)가 힘을 보태고 싶어요.”

아카펠라 그룹 더 프레전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최원석(30) 씨는 지난 2013년 광주에 내려오기 전까지 5·18을 ‘광주사태’로 불렀음을 고백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고등학교 때 한 줄로 짧게 언급했던 ‘광주’와 ‘5·18’이란 단어 사이에 이렇게 많은 피와 눈물이 담겼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5·18이 여전히 ‘진행중’이란 점

을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광주에 아카펠라를 알리기 위해 정착한 젊은 뮤지션은 이제 광주를 알리고자 아카펠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그와 함께 베이스 김용석(30), 알토 정수빈(여·23), 메조 소프라노 한지은(여·26), 소프라노 이화빈(여·26)씨 까지 다섯 명이 의기투합해 더 프레전트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성악 전공자, 전업가수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졌지만 아카펠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목포시립합창단 상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은 씨. 그녀는 ‘문화공동체 아우름’(대표 김혜일)에서 우연히 아카펠라를 접한 후 자신이 전공했던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악을 공부할 때는 악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리내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 지

휘자 한 사람에 맞춰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것을 주로 연습했어요. 그런데 무대와 관객에 따라 달라지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야 하는 아카펠라 공연을 펼치며 자유로운 음악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이즈 투 맨’(Boyz II Men) 같은 가수를 꿈꿨으나 중학교 때 찾아온 변성기 때문에 좌절했던 김용석 씨. 그는 ‘저음’이 훌륭한 소리라는 점을 아카펠라를 통해 발견했다. 한때 굵고 낮은 목소리로 고민했지만 어느 순간 ‘베이스’로서 자질을 찾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카펠라 팀을 만들어 활동했다. 임용고시에 합격하기까지 취업준비생으로 힘든 시간에도 광주교육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I sing You sing’에서 활동했던 그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을 맡고 있다.

지난 2014년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정수빈 씨 역시 ‘I sing You sing’ 멤버로 활동하며 꾸준한 공연을 펼쳐왔다. 그녀는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Real Group)의 노래를 처음 들었던 중학생 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람 목소리만이 이뤄진 아카펠라야말로 진실한 음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일 먼저 교사 생활을 시작한 이화빈 씨 또한 아카펠라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부르는 ‘더 프레전트’(The Present). (왼쪽부터)최원석·한지은·이화빈·정수빈·김용석 씨로 구성된 더 프레전트는 노래로 더 많은 이들에게 광주정신을 알리며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정성이라고 언급했다. 사람 목소리가 가진 힘이 그 어떤 기계 반주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녀는 광주정신을 오롯이 나타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부를 때 가장 큰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프레전트는 광주전남 곳곳에서 열리는 무대에 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

고 있다. 5·18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사이에서 노래로 소통을 꿈꾸는 멤버들은 분명한 목표도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 불렀을 때 뜨거운 호응을 기대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대신 관객들 표정에서 그들이 느끼는 벅찬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공연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평소 200여 명이 조회하던 페이지를 수천 명이 보고 셀 수 없이 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어요. 비록 아직은 미약한 움직임이지만 작은 관심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언젠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 광주은행, 고려인 마을 ‘행복꾸러미 나눔’

### 라면·세제 등 생필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고려인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려인 마을 신조야 대표를 비롯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100여개의 행복꾸러미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을 담아 준비한 행복꾸러미는 김, 참치, 라면, 샴푸, 린스, 세제, 칫솔, 치약, 비누 등 생활 필수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광주은행은 이렇게 포장한 행복꾸러미를 고려인 마을의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자원봉사에 직접 나선 광주은행 서재수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행복꾸러미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꾸준한 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정율성 동요합창대회 대상 송원초 후난성 장사시·악양시 순회 공연

송원초등학교(교장 신명순) 합창부는 호남대학교 공작아카데미가 최근 주관한 제1회 정율성 동요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중국 교육부 초청으로 후난성 장사시와 악양시에서 순회 공연을 개최했다.

학생 21명과 교사 4명 등 30여 명이 마오쩌둥 전 주석과 주룽지 전 총리 등을 배출한 100여 년 전통의 명문 학교인 후난성 장사제일중학교에서 첫 공연을 열었다.

송원초등학교 합창단은 광주 출신으로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율성 선생의 대표 곡인 ‘우리는 행복해요’를 중국어로 불렀

며, 경복궁터 옆 3곡, 가야금병창, 바이올린 독주를 선보였다.

또한 악양시 후난민족대학부속소학교를 방문해 협약을 맺고 학생 및 교사 간 교류 등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했다.

신명순 교장은 “정율성 100주년 기념 공연 문화예술사절단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며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중국 배우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 이웃 나라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

## ‘국악 소녀’ 최혜원양 흥부가 완창



지난해 제12회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최혜원(광주 풍암초 3학년)양이 17일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흥부가’를 완창했다. <광주전통문화관 제공>

## 효덕지구대 112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



광주남부서 효덕지구대(대장 박병우)는 지난 13일 광주대학교에서 주민들과 ‘관공서 주취소란, 112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효덕지구대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하축

- ▲박인주(정읍보호관찰소장)·신수덕 씨 장남 병규군(여수 LG화학) 정공성(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서영숙씨 차녀 고은(광주문정여고)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라페스타 4층 디어방울
- ▲박준일(광주CBS 대기자)·강정숙씨 장남 현웅(한국기업데이터 대리) 김창욱·장정근씨 장녀 은영(현대미디어 PD) 양=광주피로연-22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결혼식-30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홀.

### 동창회

▲동강대학 관광과 총동문 체육대회=24일(일) 오전 10시 모교운동장 010-9855-2177.

### 중친회

▲전주 이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지원

진도분원(분원장 이종희) 정기총회=20일(수) 오전 10시 30분 진도 노인복지관 옆 진도아트센터 2층 010-3728-9355.

### 향우회

▲재광 보성군 향우회(회장 정인채) 고향문화탐방=21일(목) 오전 9시 광주 동구 소태역 집결.

### 알림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열린마을 상담센터 중독 문제 전문상담=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신건강 및 중독 무료 상담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모집

-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여가운영 프로그램 수강생=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컴퓨터, 방송댄스, 요가월~목 문의 062-951-9461.
-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일상생활동작

지도 이용인=지체, 뇌병변장애인 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로·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양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충만재가복지센터 회원=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상담·노인복지상담 일반가족 회원가입 상담 062-942-9982.

▲장애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인=

뇌병변장애인대상으로 가정방문 일상생활동작지도. 이용료 무료. 연령제한없음.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062-943-0420.

### 부음

- ▲유봉로(전 은석초교 교장)씨 별세 기 억(사업)·기림·기덕·기순·기복·순씨 부친상 이영재(전 삼성SDI 고문)·신중빈(전 통일여고 교사)·심교인(사업)·고경석(전 광주일보 사진부장)·박중명(사업)씨 장인 상=발인 19일(화) 서울시 구로 고려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02-2626-2444.
- ▲김행심씨 별세 박동희(광주시 경제과학과장)·행중(SK건설 부장)씨 모친상 문충호(전 화순이양초등학교교장)씨 장모상=발인 19일(화) 광주역장례식장 062-264-4444.
- ▲정인채씨 별세 기석(조선대 교수)·지기(자영업)·기정·기영·영미씨 부친상=발인 19일(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b>201호 최혜원님 (남/80세)</b> 子/子婦: 최윤석/박소정, 최윤철/정영희, 최윤진/김지영 未亡人: 박준자 *발인: 5월 18일 *장지: 담양 천주교 묘지 *연락처: 227-4381	<b>401호 박학형오님 (남/74세)</b> 子: 박기재, 박응재, 박기연, 박지완 未亡人: 최복순 *발인: 5월 1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b>402호 해영지순님 (여/88세)</b> 子/子婦: 조인환/김희숙, 조인석/양문자 女/婿: 조영란/김석호 *발인: 5월 18일 *장지: 담양 청평선영 *연락처: 227-4314	<b>101호 최차영숙님 (여/88세)</b> 子/子婦: 박상현/최경숙, 박상민/이다영 女/婿: 박희경/김경수, 박희숙/이영민 *발인: 5월 1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b>102호 최이승환님 (남/73세)</b> 子/子婦: 이민수/최순희, 이민영/박금자 *발인: 5월 19일 *장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금오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